

Robert Vannoy) , 신명기, 강의 13

©2011, Robert Vannoy 박사 , Perry Phillips 박사, Ted Hildebrandt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재건에서 예배가 집중된 장소

종교적 발전

A.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종교 발전 재건에 있어서 예배 집중의 장소 1.

벨하우젠 의 가설에서 예배 집중의 중요성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 주에는 개요에 로마 숫자 IV인 “신명기와 예배의 집중화”를 다루겠습니다. 대문자 A는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종교 발전 재건에서 예배가 집중되는 장소” 입니다. 내가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벨하우젠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예배의 집중화라는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이다. 나는 신명기 12장에 여러 번 나오는(5절, 11절, 14절 등)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이라는 다소 순진해 보이는 문구가 우리가 아마도 현대 구약성서 연구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 놀라운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택하실 곳” 이라는 짧은 문구에서 여러분은 현대 구약성서 연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합법적인 장소에 관한 이 문구가 1878년에 출판된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저작의 열쇠였기 때문 *입니다* . 그 책의

일부.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이 책의 다른 모든 내용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 책, 『이스라엘 역사 서문』 (*The Prolegomena of the History of Israel*)은 지난 세기 구약 연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벨하우젠 체계의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한 비판과 역사 연구 방법론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는 현재까지 구약 연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2. Wellhausen의 시스템 - Deut. 12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임

벨하우젠의 체계에서 신명기 12장은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에 대한 그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의 발판입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 벨하우젠이 신명기 12장을 주석한 방식이 성경을 믿는 많은 주석가들의 수용을 발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벨하우젠의 신명기 12장 해석에 동의하는 복음주의자들이 많다. 그는 신명기 12장을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을 예배의 중심인 한 성소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로 읽었다. 물론 그것은 모든 희생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시대일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제단은 그 자체로 불법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제물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벨하우젠의 견해에

따르면 -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해석자들에 따르면 - 신명기 12장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를 요구합니다. 모든 제물은 하나이고 중앙에 있는 성소 성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될 무렵에는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 즉,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법궤가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그곳에 있었고 이동할 수 있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에 안착되었을 때는 그곳이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의향이 있다면 벨하우젠의 모든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구절에 대한 주석에 관한 한 당신은 벨하우젠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12장을 읽으면 성전이 독점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성소 외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벨하우젠과 일부 성경을 믿는 해석자들이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성경을 믿는 해석자들이 모세가 신명기 12장을 썼다고 말하는 반면 벨하우젠은 그것이 요시야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차이점은 모세가 썼는가 아니면 요시야 시대에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벨하우젠은 이 책이 기원전 621년 요시야 시대까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땅에서 모든 산당을 없애고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제한하고 중앙 집중화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벨하우젠은 그것을 요시아 시대에 둔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원이 모세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3. 출처 비평 및 신명기. 12 따라서 정통적인 측면에서는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의 연대가 있고 벨하우젠의 연대는 기원전 621년입니다. 이제 그가 621년에 연대를 정한 이유는 그의 견해로는 이 규정이 이전에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Wellhausen 시대보다 70년 전에 같은 관점을 옹호했던 de Wette의 견해를 따른다는 가정에서 독창적이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드 베테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데 반해 벨하우젠은 드 베테의 사상을 받아들여 구약 연구 전체 분야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왜 차이점이 있나요? 나는 이것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벨하우젠이 자료 비평에 집중하기 전에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경을 여러 출처로 나누어 그 출처를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출처 비평은 Wellhausen이 그것을 집어내고 "P" 문서라고 불리는 것을 추가하고 그것을 일찍이 아닌 나중에 넣은 후에야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요시아의 날짜를 621년으로 삼았고, 그가 D, 즉 신명기로 이해한 율법책의 발견을 그의 이론의 종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J, E, D, P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P 문서를 분리했지만 Wellhausen이 621에서 D보다 늦었다고 생각한 동안

그들은 그것을 더 일찍 넣었습니다. 그는 이 문서를 얻었고 그 순서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구약이 기록된 방식과 이스라엘 종교가 발전한 방식을 실제로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 벨하우젠의 예배 장소의 3단계 A. 특정 장소와 연결되지 않은 여러 제단.

웰 하우스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만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론은 구약의 역사적 부분을 연구할 때 예배 장소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 식별 가능한 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견해에 기초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단이 특정 장소와 연결되지 않는 단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사사기와 사무엘 시대에는 다양한 장소에 제단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이 어디에든 존재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벨하우젠은 그 당시 초기에는 종교와 삶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거의 모든 곳에서 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배 장소의 기원이 그 특정한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예배 장소에 대한 신성한 승인 또는 승인을 주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 베델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델에 제단을

세우려고 합니까? 그런 다음 왜 그곳에 제단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병인학적인 전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엘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베엘에 제단이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실 이후에 나오는데, 이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뒤집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엘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Wellhau
 sen은 그 반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렸지만
 나중에는 특정 장소에 제단이 있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 그러나 초기에는 다른 모든 곳을 배제하고 한 곳에만 묶여 있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는 다양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숭배는 자발적이었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제단을 쌓고 거의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비. 초기 선지자들은 윤리적인 삶을 위해 자유분방한 이단 센터를
 반대했습니다 . 그러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으며, 아모스와 호세아와
 같은 초기 선지자들이 이러한 종류의 자유분방한 이단 센터를 비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기에는 가나안 숭배와 이스라엘의 숭배 의식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야훼는 단지 이교 숭배의 한 형태일 뿐이고, 또 다른 변종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 시대에는 이 방종한 숭배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배가 황소와 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인 삶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벨하우젠이 말한 선지자들의 말은 그들이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의식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제의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윤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의 다양성을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제단을 그토록 강조하는 종교에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컬트란 외적인 형태의 의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가 합당한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단에 가서 제사만 지낼 뿐 윤리적·도덕적 기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의 전파 아래서 산당은 그 의미를 잃기 시작했으며 산당은 제단이 있는 곳이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예언적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이 전면에 등장하는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제의 의식과 관련하여 북왕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베엘과 단에 있는 제단은 왕국이 분열될 당시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사야는 700

년대쯤에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의 최고권을 선포하고, 이사야서 6 장에서는 부르심으로 성전에서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지배적인 예배 장소로 여겨지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체 숭배를 폐지하고 예루살렘에 집중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역 제단 등에 너무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과 예배집중화의 시도가 있었고, 그 점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일했다고 느낀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치명적인 적이라고 그는 느꼈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수도에 예배가 집중되면 막대한 물질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유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제단의 다양성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신론적 하나님 개념은 벤엘의 신과 브엘세바의 신과 이러한 다양한 다른 사이트의 신.

씨. 기원전 621년 요시야가 예루살렘을 중앙 집중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초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 여러 장소의 제단과 연결된 모든 지역 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와서 윤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신론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이것이 예배의 장소를 중앙집중화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여러 장소보다 중앙 집중식 성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곳에서 예배를 없애고 예루살렘을 예배하고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유효한 장소로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그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621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합법적인 예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였으며, 신명기 12장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땅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옛 성소들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시야가 죽자마자 예배는 여러 성소와 제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개혁은 결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621년이 기원전 586년의 유배 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작 30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의 중앙집권화가 성공하다 남쪽 왕국은 멸망되었고 유대인들은 강제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이 뿌리째 뽑혔고, 이는 정치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예배제도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 이스라엘은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가 귀환 칙령을 내릴 때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외국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시대의 낡은 관행에 따라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세대가 돌아오면, 이전의 개혁 아이디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세대가 있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계획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는 과거에 완전한 휴식을 취한 후 돌아와서 더 이상 땅에 흠어져 있는 옛 산당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 Wellhausen의 법률 규정의 3단계 a. 출 20:24-26

그래서 당신은 그의 세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제단의 다양성의 첫 번째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당신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요시아 시대인 621년에 당신은 개혁과 예배를 중앙 집중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때 그들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당연시됩니다.

이제 벨하우젠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발전의 역사가 이 세 단계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의 법률에서도 동일한 세 단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앞서 언급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출애굽기 20장 24-26절의 제단법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24-26, 그것은 언약책에 있습니다. JE 코드입니다. “ 너는 나를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너희 번제와 화목제와 양과 소와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한 모든 곳에서 드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가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말라 네가 그 위에 연장을 올리면 그것을 더럽히느니라. 너는 내 제단에 층계에 오르지 말라 네 벌거벗음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벨하우젠은 출애굽기 20:24-26의 제단법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J와 E의 법칙은 기원전 621년 이전의 초기 기간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에 해당합니다

. b. 듀터 . 12 이교 제단의 파괴와 중앙집권화

그러나 신명기 12장에서는 이방의 제사 드리는 곳을 멸하라고 명령하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위해 지정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 합니다 . 바로 여기에서 5절에 나오는 이 표현과 이 장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거하실 곳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르시리라.” 이제 그는 그 장의 진술을 역사적 발전의 두 번째 단계, 즉 요시야가 예배의 개혁과 중앙 집중화를

촉진했던 시기와 연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D" 법률 코드입니다.

씨. 유배 이후 중앙 집중화를 가정하면 "P"만 남습니다 . 따라서 "JE" 코드 (제단의 다양성)와 "D"(중앙 집중화)가 있는데 당시에는 실제로 실패했습니다 . 그러면 "P"만 남게 되며 Wellhausen에 따르면 "P"는 "D"에서 중앙 집중화가 명령되기 때문에 분명히 "D"보다 늦고 이는 기존의 반대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는 "P"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P" 는 단지 한 장소만이 예배 장소가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 후 "P" 자료를 유배 귀국 후 제3기 사료와 역사적으로 동일한 배경에서 찾아낸다. 따라서 전체 "P" 소스는 유배 이후 또는 기원전 539년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 d. 벨하우젠의 방법 요약 그래서 그는 그 세 단계를 발견하고 그 결과를 역사와 법칙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잘못된 많은 것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하나의 확고한 날짜인 기원전 621년부터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621년부터 앞뒤로 작업하며 전체 구조의 날짜는 621년과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결과는 구약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경에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언급한 것은 훨씬 후대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심지어 "JE" (출애굽기 20:24-26) 자료도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시대의 것입니다. “P” 는 출애굽기의 큰 부분과 거의 모든 레위기, 주로 레위기에 해당됩니다.

e. 벨하우젠 접근 방식의 문제점 - 성막 없음

바로 여기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는 예배의 중앙집중화와 관련하여 각 문서 [J, E, D, P]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제시합니다. 1년에 세 번씩 너희의 모든 남자가 너희의 모든 주요 축제에서 내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모세의 법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필요성은 중앙성소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궤가 있던 성막이 확실히 최상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곳에 합법적인 예배 센터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순차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다중성에서 하나로 이동합니다. 내 인상은 그가 초기에 중앙집중화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국 분열에서 벤엘과 단의 성소를 세웠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상의 이야기에서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단들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벨하우젠은 여로보암 시대에는 예배가 중앙 집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부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요시야 시대까지는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로보암 시대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벨하우젠의 계획에는 성막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Wellhausen에 따르면, 그것은 후기 “p” 소스에 의해 성전 모델을 기반으로 건설된 자료이며, 포로 생활을 하는 누군가에 의해 초기 기간으로 이스라엘이 예배했던 곳으로 투영되었습니다. 성전 시대, 장막 시대. 그는 성막이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성전 건축하기 전의 말씀이니라. 벨하우젠에 따르면 성막의 모든 재료는 성전을 모델로 한 후기 사상을 회고한 것이지만 성전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제단의 다양성과 작가의 다양성에 대한 그의 계획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두 날조이며 경건한 사기입니다.

벨하우젠에 따르면 존재했던 유일한 성막은 광야에 있으며 출애굽기 33장에 언급된 회막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 밖에 서서 그것을 '회막'이라 불렀다. 그러자 이렇게 되었나니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진영 밖에 있는 장막으로 나갔습니다.” 성막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어느 시점에 지어졌거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막” 이라고 불리는 이 장막은 모세가 진영 밖에 쳤고,

벨하우젠은 이것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유일한 “성막” 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나머지 모든 내용은 나중에 함께 엮어 나중에 작가들에 의해 해당 맥락으로 다시 투영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던 곳에 모세가 장막을 쳤다는 것뿐입니다. 물론 벨하우젠은 이것 사이에 모순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막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의 중보기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좋아, 내가 말했듯이 역사와 율법의 이 3단계 발전은 구약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의 이름으로 언급한 것은 예외 없이 후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 즉 오경의 기초가 되는 것은 JEPD로 나뉘며 그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벨하우젠의 계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세가 구약계시 전개의 종말이 된다는 것이다. 모세는 구약 계시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끝 부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벨하우젠은 구약 종교의 기초, 즉 오경을 모세오경에서 제거하고 그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설계한 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초를 고안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으로는.

에프. 가나안 이교 신앙 위에 세워진 구약 종교의 기초 모세가 아니라면 구약 종교의 기초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까? 글썄, 그는 그 기초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는 가나안 종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태초에 야훼는 다른 모든 신들과 마찬가지로 신이셨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체 발전의 출발점은 모세의 계시가 아닙니다. 초기 셈족 이교, 즉 가나안 이교도.

여기 에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시는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진보입니다. 그것은 벨하우젠의 계획에서 가나안 이교 국가에서 모세로의 진화로 대체되었습니다. 모세는 벨하우젠 개발의 끝입니다. 우리는 이교 이교에서 “모자이크” 유일신교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의 시작점은 벨하우젠에게는 끝점입니다. 우리는 구약이 율법에서 선지자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율법, 특히 D와 P가 선지자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배치됩니다. 선지자들은 윤리적 유일신론의 위대한 창조자들입니다. 그는 이교에서 선지자로, 마지막으로 “모세” (JEDP)로 이동합니다.

g. 벨하우젠의 선지자 문제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은 허공에 매달린 채

방치된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들은 모세의 터 위에 서는 개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적 견해는 선지자들이 기본적으로 모세의 기초 위에 서서 사람들을 언약의 의무로 되돌리도록 촉구한 개혁가들이라는 것입니다. 벨하우젠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개혁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옛날 방식으로 되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벨하우젠의 견해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초기 이교주의에서 벗어나 윤리적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고 “모자이크” 유일신교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일과 율법과 선지자의 질서와 관계가 중대하도다 그것은 벨하우젠의 방식이거나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시간. 학생의 질문 A 아래에 있는 내용은 모두 “예배의 집중화 장소와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종교 발전 재건”입니다.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질문입니다.

벨하우젠은 이 문서들이 모세의 입에서 작성되고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것은 경건한 사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벨하우젠은 합리주의적 전제와 그의 시대에 진화적 발전에 대한 새롭고 위대한 개념이었던 종교의 진화적 개념에 관한 철학적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틀 속에서 그는 한 걸음씩 인도되어 정통은 옹호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런 접근 방식은 '과학적'이었다. 성실성을 지키려면 그것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를 이끌었던 곳입니다. 내가 이 강좌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선한 양심에 따라 더 이상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훈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문제로 직위를 사임하고 다른 대학에서 썸어 교사직을 맡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 특히 그의 학생들과 그의 사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그의 선한 양심을 공유하지 않고 신학교에 자리를 잡고 유럽과 미국의 주요 학교의 신학 영역에서 이러한 사상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를 파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사들을 훈련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없었습니다.

학생의 질문입니다.

엘레판타인 소재가 아직 밝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가 그 일을 처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의 질문입니다.

그는 교훈적인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종교 발전의 역사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는 관점은 종교사적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상은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벨하우젠에 따르면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집트 에서 집단 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

선지자들은 “모세” 보다 먼저 옵니다. 또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선지자들은 오경의 내용보다 먼저 나옵니다. JEDP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에 달려 있으며 그 반대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전제가 종교의 진화적 발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종교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그런 형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교한 개념과 고도로 발전된 의식 시스템을 조기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제는 진화적 발전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약의 역사를 그러한 계획에 맞게 재배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선지자 시대까지는 유일신교가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와 한 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윤리적 유일신론의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아모스와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이 많은 신들과 가나안의 이교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발전한 것은 이러한 다신교적 이교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중앙 예배 장소를 가리키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이 있다면 하나의 예배 장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적 범주와는 완전히 다른 범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다음 주에 우리는 B, “벨하우젠의 견해에 대한 반응” 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낼 곳이 바로 신명기 12장입니다.

루벤 카베라(Ruben Cabera)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